

남에게 그려 망포치 못하니 이에서 더 원통함이 쏟아지며 그 히가 없어 내가 동포천과 같이 망장을 떨자고 하도 어서 봉부질해야 간나마의 종이 만히생 길을 바라고 이만-

미숙남가죽대화

한치진 (거제)



이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할것도 있고 합당치않을것도 있습니까 이 푸가자리를 비교해야 이를 의 제목을 남부당이라 하였으나 그 합당한것인지 를 문제로 하여 말하고 전다

봉산당의 당부당

봉산당 주의가 이二十세기에 나타마다 소회마자 안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봉산당이라 사회당이 타 부정부패의 손에 끌려온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 도록 며 혹은 조우권 죽어권의 힘의 토부를 중전영호 기도 죽야 전제 암박하는 나락이나 공화조우하는 법 생이나 그 목소리의 축감을 밟지 않은자-인도다

봉산당은 그의 철학을 헤쳐나가면서 그의 수가 다소간 서로 갖지 않았거나 보통 봉산당을 향하여 이론전

현 구의게 종이로 필고자는 되도록 노의 종이로 필기되었으며 우마와 것은 비우를 비자나지못하게 마련되어 이와 이와 갓지 여러 구조를 살아오다가 단체히 청자 혁명파 미구가 공화를 세운 이후로 이 소상이 비도 소리로 하여 세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미미를 둘로 걸고 있는 이거시 서양문화의 소상발전과 결

파라 만세인류의 무공을 침복을 세치개 하였도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보건대 만상의 구별이 신

의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새어가서 저산가진자는 이
전 향반노릇을 여전히 하며 저물업는자는 이전상동
노릇을 감상하게 된지라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입시
호엑스나 반상의 등분은 여전히 있어서 고금에 다를거
시 빌로 입도다

흐울며 노예로 막론하지라도 범률로 갈호야 사를울
돈으로 미이는 못한다하나 월급이라 풍진이라 하는
보슈면의로 사를울 사다가 노예갓치 부리기는一半
이라 부자는 일안이하고 가난한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침략에 모든 호강 다하고면서 노동자의비는
거스로 부자우에 더 부자가 되려고 일금과 삭전을
정점싹가서 가난한자는 호가에게를 말못하고 늘거죽
도록 얹홀구며 노려하야 늄의 죽질로 뻐가늘도 죽수
역호다가 말단름이오 그 후새이이 나드되로 스도이
러케 살것같이고 이엑지 노예새이황파 빌로 다르다
흐리요 그림으로 봉산당의 봉봉향족의가 거거술입시
흐야 다 표표하게 흥자홍이니 엊지호야 이거슬관령
히 만들거손싸』 운제아니이 봉봉을 압둘자는즉의
는 대지 올호니 이는 적당호 드스시라 올겟고

『봉산당 주의충 시세계 부당호거술 압둘호진위
태평구습서 공산당의 광부당

一· 저산을 난화 가지자 홀이라 모든 사를의 저
산을 토디전축동 모든 부동산세자 악암호에다
가 펑준히 난화 차지하게 하자 홀이니 이거술
가난한 사동은 물돈 환영하겠지만은 토디를 펑
준히 난화 맛진후에 개으루 사를들이 농소를 안
이후던지 일을 암이후던지 홀야 토디를 다 바
리개되면 엇지 5셋노 부즈린호 사를들이 부
즈린히 일호야 게으른 가난적이를 먹이야 질기
시호 이 가난장이는 층층 슈효가 늘어서 장추
는 저마다 일안이하고 엊이 먹으리는자이구
증에 가득할거시며

二· 자본가를 입시호자 홀이라 모든 부자의 돈
을 압홀여다가 그동이 난화가지고 살개 5민부
자의 양간노릇호는 폐단은 막히리니라 지정가
들의 경쟁이 입식자민 상업자 꾸임이 발달되
기어리우리니 사로의 지해가 막히고 모든 그
미모호 기재가 인장이 다스로 폐기되어 지
금에 이동호새이이 모든 물건이 이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차명이 증시겠지다 자본유이래
호기는 어리우리니 새밀률로 제정호야 노동과

대평양습지 통산당의 당부당

十八

평등세력을 가지게 하는거시 나흘러이며

三、지식계급을 업시호자 흥이나 모든 인민의

보통상식경도를 높혀서 지금에 학식으로 향반

노릇하는 사람들을 비등호재 되자 하는거순가

흥거나와 지식계급을 업시호자 흥은 불가하며

四、종교단체를 학파호자 흥이라 주교로 종교단

례가 공고히 죠직되며 그안에 인류계급도잇고

도다 쇼우권도 안희며 이 속에서 인민업체와 학

도를 안히 흥엇느니 모두 구교승비호던나라에

서는 이 폐허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새교회

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입고 겸허야 평등주유

의 수상이 본티 얼교확장되노중에서 발전된거

시라교회 죠직을 업시호는걸은 인류계의상 손

히가 다대호거시며

五、정부도 입고 군수도 입스며 구기가 수상도

다 업시호다 흥이라 이에 터호야는 광산당 속

에서도 히본이 안홀뿐더러 지금 광산당을 주장

한다는 아라수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

수가 업시는 부지홀수입는 소정을 주기들도다

나는바—라 더 설령을 요구치안커니와 설령세

상이 다 광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구가 이 다
구구가를 업시호야 세계역 빙성을 일우며 군수
들 업시호고 혼파장을 녹여서 히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심단절로 구구가를
몬져 회복호야 세계에 당당한 조우구구을 만들
어노코 군수를 길너서 우리 적구구의 군함이 부
산항구에 그림자도 보하지 못하게 만든후에야
구구가죽의를 업시호 문제라도 새으각호지 그
전에는 설령 구구가죽의를 바려서 우리—구—
이 모도 다 밀고에 아가 된다 훌지라도 우리는
원치 안이 훌지라

우리 한족에게 데— 규모고 데— 진하고 데— 큰
노라

거순 광복수업이라 광산죽의가 이일을 도울슈잇스
먼 우리는 다 광산당회기를 지혜치 안으려나와만—
이일이 광희될것 저희면 우리는 걸고 천성홀슈 입